

융복합극 ‘오방 최흥종’, 한 인간 존재의 변화와 확장 예술 언어로 표현

■ 오방 최흥종,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④ 예술은 어떻게 최흥종을 다시 부르는가

한 인간의 변화가 한 도시를 바꾸다

광주의 역사는 단지 사건의 역사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눈물, 희망과 헌신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기억의 역사이다. 그래서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 도시가 기억하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

광주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다. 독립운동가가 있고,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있으며,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다. 그러나 광주의 정신적 유산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오방(五放) 최흥종 목사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그의 이름은 다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최흥종은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 생명 환자들의 친구였고, 결안들의 아버지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광주의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흥종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는 미션21이, 올해로 서거 60주년을 맞는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선생의 일대기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이복행 본지 주필



오방 최흥종 선생

융복합극(오방 최흥종)과 공공신학적 예술의 가능성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우리는 보통 역사책을 통해 인물을 만난다. 연대기를 읽고 업적을 배우며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간다. 그러나 어떤 인물들은 기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삶이 남긴 울림과 정신은 사실의 나열만으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방 최흥종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최흥종의 삶은 이미 여러 전기와 연구들 통해 알려져 있다. 그는 광주의 대표적 기독교 지도자였고, 한센인과 빈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실천가였다. 그러나 그의 삶을 단순히 업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그가 남긴 것은 사건이 아니라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공연된 융복합극 **《오방 최흥종》**은 단순한 전기극의 형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비워지고, 사랑으로 확장되는가를 예술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은 전기극이 아니다

일반적인 전기극은 인물의 생애를 따라간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업적을 정리한다. 그러나 **《오방 최흥종》**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 공연은 최흥종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한다. 그는 누구였는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공연은 역사적

은 역사극이라기보다 존재의 순례를 그리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몸이 먼저 이해하는 예술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몸의 언어이다. 무대 위에는 배우뿐 아니라 현대무용수와 오이리트미(Eurythmy) 공연자가 함께 등장한다. 그들의 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하나의 신학적 언어이며 철학적

상징한다. 오방의 장면에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형상화한다.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술적 선택이다. 최흥종의 삶 역시 이론보다 실천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소리는 존재를 깨운다

이 공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소리이다. 공연 곳곳에는 설

최흥종의 삶은 오히려 귀를 여는 삶에 가까웠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사회가 외면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시대의 아픔을 들었다. 그래서 공연은 시각보다 청각을 적극 활용한다. 관객은 소리를 통해 최흥종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라진 인물을 소환하는 예술

이 공연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소환’이다. 예술은 재현하지 않는다. 존재를 호출한다. **《어둠에서 공간으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선언한다. “예술은 재현하지 않는다. 존재를 호출한다.” 이 문장은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공연은 최흥종을 박제된 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를 현재로 불러낸다. 관객이 최흥종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흥종과 마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뒤에도 질문은 남는다. 나는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좋은 예술은 답보다 질문을 남긴다. **《오방 최흥종》** 역시 그러하다.

적 예술로 읽을 수 있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오방 최흥종》**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가. 신앙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공연은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은 분명하게 남긴다.

공연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는다

최흥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남긴 정신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오방 최흥종》**은 바로 그 살아 있는 기억을 예술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공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하나의 질문이다. 하나의 성찰이다. 하나의 공공신학적 실천이다. 4회에 걸쳐 살펴본 최흥종의 생애와 사역, 오방과 화광동진의 정신, 그리고 예술적 재해석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이다.”

최흥종은 그 문장을 설교로 남기지 않았다. 자신의 삶으로 남겼다. 그리고 오늘, 예술은 다시 그 삶을 우리 앞에 불러내고 있다. 어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방 최흥종이 남긴 빛이 그러했고, **《오방 최흥종》**이 다시 불러낸 빛 또한 그러하다.

‘그는 누구였는가?’ 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
“예술은 재현하지 않는다. 존재를 호출한다” 작품 이해하는 열쇠

설교로 남기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남긴 명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

사건보다 존재의 변화에 집중한다. 최막치에서 최흥종으로. 자기중심성에서 타자 사랑으로. 소유에서 나눔으로. 높아짐에서 낮아짐으로. 관객은 최흥종의 일생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변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 점에서 **《오방 최흥종》**

언어이다. 공연은 관객에게 먼저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느낌을 요구한다. 설명을 제공하기보다 경험하게 한다. 방황의 장면에서 흔들리는 몸은 길을 잃은 인간 존재를 보여준다. 낮은 곳의 장면에서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은 섬김과 돌봄의 방향성을

명보다 소리가 먼저 등장한다. 시계 소리, 발자국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계곡물 소리, 싱잉볼의 울림. 이러한 소리들은 단순한 효과음이 아니다. 하나의 존재론적 장치이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신학적 예술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오늘날 한국교회는 새로운 선교적 언어를 필요로 한다.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 안의 언어만으로는 세상과 소통하기 어렵다. 이때 예술은 중요한 가능성이 된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감각을 깨우며, 삶을 성찰하게 만든다. 특히 **《오방 최흥종》**은 종교적 메시지를 직접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연 전체는 복음적 가치로 가득 차 있다. 낮아짐, 섬김, 배려, 공동체, 화평동진. 이러한 가치들은 최흥종의 삶을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을 공공신학



최근 공연된 융복합극 ‘오방 최흥종’은 단순한 전기극 형식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랑으로 확장되는가를 예술의 언어로 표현해내고자 했다.

교회창립 : 1979. 10. 21

미션21 창간27주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 광주벧엘교회를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리종빈
- 부목사 이경민 황대성 김용정 신태호 권오락 문병주 이창열 손광혁 신사도
- 교육목사 박성자 김은도
- 전도사 이은혜 백상화 선행임 최제인
- 원로장로 정대조 손진홍 양승일 김용운 고평호 이춘원
- 은퇴장로 김용이 장재걸 최승영 임석규 이학립 손양섭 이종국 박성모 지병철
- 장성강 박길남 김인환 김동곤 정희락 송계영 박도훈 신용식 윤 판
- 김재철 손창위 오용종 조규태 김영관 정덕만 이경범 최동호 양승중
- 송훈오 장 신 현영환 김갑삼 장일규 박용석 우영중
- 시무장로 문정수 박현주 신채후 박상현 유영석 정용진 송용성 안호현 이찬우
- 정희수 정민섭 김태성 이종호 백종수 고송희



위임목사 리종빈

■예배시간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7:00	대예배실	영양미부	오전 11:00	관사
	2부 오전 9:00	대예배실	유.시.부	오전 11:00	관사 1호실
	3부 오전 11:00	대예배실	전학미부	오전 8:00	관사
	4부 오후 1:00	소예배실	저학미부	오전 11:00	관사
수요기도회	오전 10:30	대예배실	교회미부	오전 11:00	세피락실
세척기도회	오전 5:30	소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1:00	소예배실
불러심기(노회)	오후 7:30	소예배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벧엘교회

61610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 군분로170번길 8(월산동)

■교 회:(062) 367-1004 ■팩 스:(062) 361-1004

■홈페이지: www.kjbethel.kr ■e-mail:kjbethel1979@hanmail.net